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디딤돌 되다

전북새일센터,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 직업교육훈련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양성교육' 직업교육훈련생의 효과적인 취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양성교육'은 총 120시간 과정으로 제조업 생산관리의 이론과 실무 등 전문교육과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소양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투입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해 취업 연계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관련기업 취업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애 센터장은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 직업교육훈련은 반도체, 디지털, 4차산업혁명, 로봇산업 등 성장가능한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된 직종이므로 잘 배워 관련분야로의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3일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양성교육' 직업교육훈련생의 효과적인 취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진행했다.

업 및 구인예정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참여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오는 9월 27일 개최 (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경찰 남계파출소 협력치안 활성화 위한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 남계파출소에서는 지난 22일 내고를 안전지킴이와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혁신의 일환인 주민참여·환류를 통한 지역 치안 문제 근본적 해결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정부 협업체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중현 조장은 '내고를 안전지킴이' 활성화로 이웃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조금이나마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연적 감시체계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일수 남계파출소장은 "경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협력치안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치안활동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원형 기자

남원경찰 덕과파출소, 사회적 약자 문안순찰로 생명구해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가 정성치안에 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덕과파출소의 문안순찰로 위급한 시민을 구해 주목받고 있다.

덕과파출소는 평소 정성치안의 일환으로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독거노인, 지적장애인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지난 22일에는 김형철 소장과 강승오 경위가 지적장애 2급 박모(63)씨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 마침 축사에서 가족을 돌보다가 폭염에 탈진해 쓰러진 박씨를 발견했다.

이때 박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호흡이 거의 없는 등 위급한 상태로, 이에 김 소장과 강 경위는 박 씨를 신속히 그늘로 옮겨 응급조치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 남원의료원에 후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경찰 여청과, 약자보호 공동체 치안 다짐대회 열어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3일 익산시 슬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익산지역 학원장 및 강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으로 인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과 권 리증진을 위해 마련 되었고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요령,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최신 사례 및 관련 위주의 교육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공감한 상황을 질 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송태석 여청계장은 "어릴 때의 아픈 경험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초기개입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정읍경찰 이평파출소, 장애인보호시설 방문 인권예방 정성 순찰

정읍 이평파출소(소장 김영식)에서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정성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장애인 16명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눈높이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들 간의 폭행, 관리인들의 욕설, 폭행,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정성치안 1310 문안 순찰 활동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가 정성치안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1310(1일 3개마을 10명 만나기) 문안순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및 치안민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 대화가 아닌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법과 주거지 내 가스 및 전기시설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 도동지구대장은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 슬로건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정성을 다하는 결혼이주여성 보호활동 강화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 및 지원활동을 강화했다.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는데 막대한 두려움이 있는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요령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피해 지원대책 등을 안내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이 1:1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 중국, 일본 등 13개 나라 언어로 제작한 이주여성 폭력 예방 안내서를 배부하며, 월드비전·굿네이버스 등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돕고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견인했다.

이상준 여성청소년계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해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

남원소방서가 화재발생 시 대피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문화조성을 통한 다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불나면 대피먼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스마트폰 등으로 화재 신고는 많은 편이나, 119신고로 인해 오히려 대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 고시원 화재 시 세입자가 화재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 10분 넘게 혼자 불을 끄려다 실패해 대피 지연에 따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와 달리 지난해 2월 서울 신촌 병원화재 시 경비인력 및 간호사 등을 동원해 즉각적으로 200여 명을 대피시켜 단 1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었다.

조용주 서장은 "소화기 사용도 중요하고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